

전문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의 적응역량이 진로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Effects of Adaptive Capacity on Career Outcomes amo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tudents at a Junior College

이 수 영 (Su-Young Lee)*

양 지 안 (Ji-Ann Yang)**

조 상 은 (Sang-Eun Cho)***

초 록

본 연구는 전문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생 51명을 대상으로 입학 초기 적응역량이 학업성취도(GPA)를 매개로 졸업 직후 진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적응역량 변수 중 가정내갈등은 진로성과 집단 간 직접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 기간 중의 가정 환경이 졸업 후 진로 적응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둘째, 자기통제력은 취업 가능성을 약 4.6배 높이는 핵심 역량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조절 능력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취업 준비와 관련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미래적응도·목표지향성·자존감은 학업성취도를 매개로 졸업 직후 진로성과에 간접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학업적 동기, 심리적 자원이 학업성취를 통해 진로성과로 이어지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력 강화 및 가정 환경 진단을 포함한 심리·정서적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학교 차원에서 가정 환경 취약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정서 지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면, 학업 수행뿐 아니라 진로 전환 시점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 분야의 취업 환경을 반영한 실무 연계형 진로 교육이 자기조절 역량과 병행된다면 진로전환 시점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early adaptation capacity on post-graduation career outcomes, mediated by academic achievement (GPA), among 51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s from a junior college based on data collected across three time poin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adaptation capacity variables, family conflict was the factor most strongly associated with direct differences in career outcomes across groups, suggesting that the home environment during college has a lasting influence on post-graduation career transition. Second, self-control increased the likelihood of employment by approximately 4.6 times, indicating that self-regulatory ability is closely associated with career preparation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Third, future adaptability, goal orientation, and self-esteem indirectly affected post-graduation career outcomes through academic achievement, empirically confirming a pathway through which positive future expectations, academic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resources contribute to post-graduation career outcomes through academic achieve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tudent support should extend beyond academic achievement to includ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interventions, such as strengthening self-control and assessing home environmental risks. Regular counseling and support programs for students from vulnerable backgrounds may improve both academic persistence and adaptability during career transitions. In addition, practical career education reflecting employment conditions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ield, combined with self-regulation training, may further enhance graduates' career adaptability.

키워드: 적응역량, 학업성취도, 진로성과, 매개효과, 자기통제력

Adaptive Capacity, Academic Achievement, Career Outcomes, Mediating Effect, Self-Control

* 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부교수(sulibrary@daelim.ac.kr / ISNI 0000 0004 7919 3473) (제1저자)

** 승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jiannyang@sewu.ac.kr / ISNI 0000 0004 9302 4975) (교신저자)

*** 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조교수(secho@daelim.ac.kr / ISNI 0000 0005 1358 5527)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6년 5월 4일 논문심사일자 : 2026년 5월 13일 게재확정일자 : 2026년 5월 22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7(2): 35-54, 20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6.37.2.035>

※ Copyright © 2026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식정보 사회로의 전환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대학 졸업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패러다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이 취업 및 직업적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간주되었으나, 현재는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스스로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며 조정해 나가는 적응역량(adaptability)이 진로발달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Hirschi, 2009; Savickas, 2005).

진로성과(career outcomes)는 진로 관련 행동과 심리적 결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취업 준비 행동, 전공 만족도, 취업 의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직업 탐색 행동 등이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Hirschi et al., 2015; Lent et al., 1994). 국내 연구에서도 적응역량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진로 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김경화, 류정희, 2024),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사실상 공백 상태이다.

특히 전문대학(2년제)은 4년제 일반대학과 달리 비교적 단기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재학생 대부분이 졸업 후 곧바로 취업 현장에 진입하게 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커리어넷의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결과에도 전문대 72.4%, 일반대 64.6% 취업으로

조사되어 그 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전문대학 학생들은 진로탐색과 준비, 취업 전환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며, 불확실한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진로 관련 선행 연구들은 주로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전문대학 학생, 특히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문헌정보학은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기록관리, 지식정보 유통 등을 다루는 학문 분야로, 졸업 후의 진로 경로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기록물관리기관, 정보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공개채용 경쟁률 급등, 정규직 사서 수요의 감소, 비정규직 및 파견 근무 형태의 증가,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직무 재편 등으로 인해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생들은 진로 불확실성과 취업난에 직면하고 있다.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서의 취업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앞으로 점차 축소될 것이다'로 응답한 학생이 30.3%, '보통이다'로 응답한 학생이 30.3%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향후 사서의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항목에 2013년 37.5%에서 2016년 24.9%로 취업 전망을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영희 외, 2017).

이러한 현실에서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진로에 대한 탐색과 계획, 나아가 그 실행 의지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성취 이상의 생존 전략으

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입학 초기의 적응역량과 스트레스 수준이 재학 중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졸업 직후 진로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전문대학 교육의 효과를 진단하고 진로지도 방향을 설계하는 데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이라는 고유한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 관련 심리적 역량을 실증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향후 해당 분야 진로교육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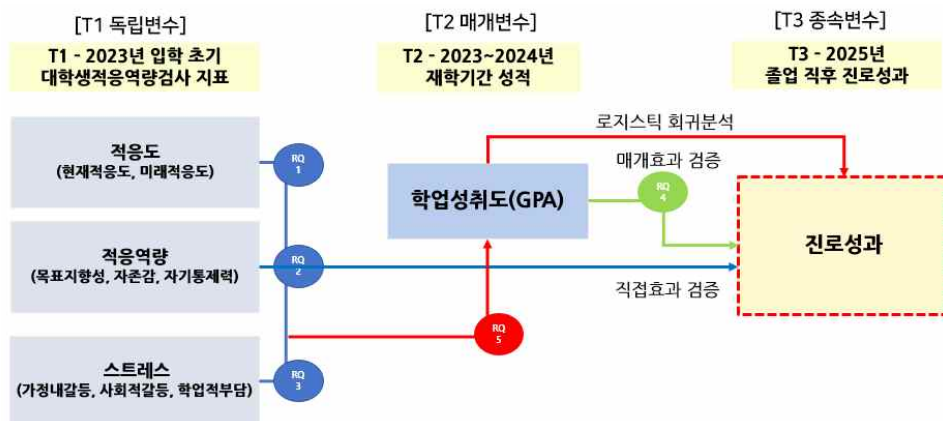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대학생의 적응역량 및 스트레스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양지안(2025)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미래적응도·목표지향성·자존감 등 긍정적 심리 요인은 학업성취도(GPA)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학업적 부담은 성취도 저하의 주요 위협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전문대

학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의 재학 중 적응역량(T1)이 학업성취도(GPA, T2)를 매개로, 졸업 직후 진로성취(T3)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설계는 <그림 1>과 같이 T1 시점의 독립변수(적응도, 적응역량, 스트레스)가 T2의 매개변수(GPA)를 경유하여 T3의 종속변수(진로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RQ1: 적응도(현재적응도·미래적응도)는 진로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
- RQ2: 적응역량(목표지향성·자존감·자기통제력)은 진로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
- RQ3: 스트레스(가정내갈등·사회적갈등·학업적부담)는 진로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
- RQ4: 학업성취도(GPA)는 진로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
- RQ5: T1 적응역량 변수들은 학업성취도(GPA)를 매개로 진로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경기도에 위치한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재학생으로 한정하며, 입학 초기 대학생 적응역량검사 결과, 재학 기간(4학기) 동안의 학업성취도, 졸업 직후 진로성과 자료를 순차적으로 수집·분석한다. 이를 통해 3개 시점의(T1~T3) 시계열적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으로 각 변인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 전문대학 문헌정보학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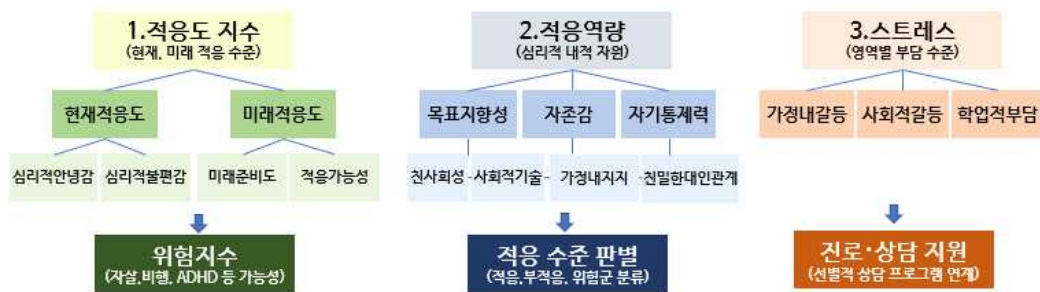
이 스스로 자신의 생애와 진로를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토대임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는 인싸이트(INPSYT) 심리검사연구소에서 개발한 MindFit 적응역량검사가 대학生的 적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 검사는 학생의 정신건강 수준 및 심리적 자원을 파악하고, 적응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며, 중도탈락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검사는 크게 적응도 지수, 적응역량, 스트레스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그림 2>와 같이 세분화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대학생 적응역량 검사의 구성

대학生的 적응역량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이 심리적·행동적으로 유연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적 심리자원의 총체를 의미한다. Savickas(2005)는 진로구성이론(career construction theory)에서 적응역량을 “직업발달 과업, 전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정의하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개인

적응도는 현재적응도지수와 미래적응도지수로 구분된다. 현재적응도지수는 학생이 현재 대학생활 및 일상생활에 얼마나 원활하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심리적 안녕감과 심리적 불편감을 함께 측정함으로써 현재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상태를 반영한다. 미래적응도지수는 향후 학업 및 사회 진출 과정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잠재적 준비 수준을 의미한다. 두 지수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현재의 적응 상태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심리적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 MindFit 대학生 적응역량검사 구성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된 적응역량은 목표지향성, 자존감, 자기통제력을 핵심 구성 요인으로 포함한다. 이 세 요인은 개인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내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목표지향성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는 동기적 성향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목표지향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탐색 행동이 활발하고 학업 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김수연, 조한익, 2013).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뜻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김선환, 김미중, 2016). 자기통제력은 충동적 행동을 억제하고 장기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학업 지속성이 유지되고, 진로 준비 행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송경진, 2023).

스트레스의 하위 구성 요인은 가정내갈등, 사회적갈등, 학업적부담으로 구분하여 측정된다. 가정내갈등은 부모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과 갈등의 정도를 나타내며, 사회적갈등은 또래, 교수, 기관 환경 등 대학 내외의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마찰을 의미한다. 학업적부담은 수업, 과제, 성적 관리 등 학업 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지속적인 학업부담은 학업성취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동시에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미, 2025). 이들 스트레스 요인은 적응역량과 상호작용하며,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성취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상에서 살펴본 적응도, 적응역량, 스트레스는 본 검사의 핵심 구성 영역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입학 초기 적응 상태를 측정하는 주요 변수로 활용한다.

2.2 학업성취도(GPA)의 개념 및 매개적 역할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는 대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해 달성하는 학업수행의 결과를 의미하며, 다양한 교과목의 성취를 누적하여 산출되는 객관적 지표로서 주로 평점 평균(GPA: Grade Point Average)으로 측정된다. GPA는 단순한 시험 성적의 집계가 아니라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등 다양한 심리적·행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로 대학 교육의 대표적인 성과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신정철 외, 2008; Richardson et al., 2012).

GPA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행동적 변인은 다층적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활적응 관련 237개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에서는 학업적 적응 수준이 GPA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사회적·정서적 적응은 상대적으로 약한 관계를 나타내어, 학업적 측면의 적응이 GPA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redé & Niehorster, 2012). Richardson et al.(2012)은 13년간(1997~2010년)의 대학생 학업성취도 연구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241개 데이터셋으로부터 GPA와 관련된 50개의 상관변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수준, 노력 조절 등의 비인지적 요인이 GPA와 중간 크기의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회심리적 맥락 요인의 상관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는 GPA가 학생의 배경적 조건보다 내적 동기, 자기조절, 목표지향성과 같은 심리적 역량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지표임을 보여준다. 또한 GPA가 단순한 재학 중 성과 지표를 넘어 취업 가능성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Li et al.(2022)은 대학 졸업예정자 646명을 대상으로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취업가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도가 성취동기와 취업가능성 사이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GPA가 재학 중 적응과 학습의 결과물인 동시에 졸업 후 취업 여부와 연결되는 경로 변수로 기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와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요인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도 다수 있다. 신정철 외(2008)는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투입변인과 과정변인으로 구분하여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한 결과, 대학만족도와 교육과정 만족도가 수업태도를 매개로 GPA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학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학습 과정 변인을 통해 학업성취도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자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가 GPA를 유의미하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업만족도는 GPA에 대한 예측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학업성취도가 외부 환경 조건보다 학습자의 내적 동기와 심리적 자원에 의해 더 크게 결정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이경희, 김지연, 2014).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자기조절능력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 수준이 높더라도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경우 적응 수준이 완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어 개인의 자기조절 역량이 학습 및 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명주, 최보영, 2017). 전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현재적응도와 학업적 부담이 GPA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된 반면, 미래적응도·목표지향성·자존감 등 긍정적 심리 요인은 GPA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양지안, 2025). 이들 결과는 적응역량과 스트레스가 단순히 주관적 심리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GPA라는 객관적 학업 성과로 직접 이어지는 주요 선행요인임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보듯이 학업성취도는 단순한 결과 변수로 보기보다 다양한 선행요인의 영향을 반영하는 종합적 지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의 초기 적응 특성과 같은 요인이 학업성취도를 통해 이후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학업성취도(GPA)는 적응요인과 진로성취를 연결하는 매개변수로 해석될 수 있다.

2.3 진로성취의 개념 및 측정 요인

대학 교육은 학생이 전공 지식과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고, 이를 기반으로 졸업 이후 취업이나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등 진로성취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과 재학 중 달성한 학업성취도는 졸업 후 취업 또는 진

학과 같은 구체적인 진로 선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진로성과는 입학 초기의 심리적 적응역량과 재학 기간 중 형성된 학업성취도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대학 교육의 최종 성과로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성과는 취업이나 진학과 같은 객관적 결과뿐 아니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등 졸업 이후 진로 진입을 준비하는 과정적 성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문학선, 김양균, 2020; 박신영, 이동형, 2013). 진로성과는 대학 재학 중 경험하는 적응 수준을 토대로 형성된다.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진로준비행동이 활발할수록 그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신영, 이동형, 2013).

적응역량과 자기효능감 역시 진로성과 형성의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전공에 대한 만족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실제 진로준비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이중훈, 김성환, 2018). 또한 진로목표지향성이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목표지향성이라는 적응역량 요소가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을 통해 진로성과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이현숙, 양유정, 2021). 신입생 적응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역시 입학 초기의 적응역량 강화가 이후 진로성과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였다(지영주, 양승경, 2021).

스트레스 요인은 진로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과 준비 행동이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진로성과에 부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문학선, 김양균, 2020). 반면 진로정체감과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심리 자원은 스트레스와 달리 적응과 진로발달을 동시에 견인하는 촉진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오미진, 김봉환, 2021).

학업성취도 역시 진로성과와 연결되는 핵심 매개요인이다. 학업성취도는 전공지식 습득 수준과 학습 지속성, 성실성 등을 반영하는 지표이며, 대학 시기의 성취 경험은 이후 진로 자신감과 취업 및 진학 준비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적응과 사회적응이 학업적응을 매개로 진로적응과 환경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 영역에서의 성취 경험이 진로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정귀연, 202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GPA를 적응역량 및 스트레스 요인과 진로성과 사이의 매개 변수로 설정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대학생의 진로성과는 졸업 후 취업 여부만으로 설명되기보다 대학생활 적응, 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관리, 학업성취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문대학 학생의 경우 졸업 직후 취업과 상위 학교 진학이 주요 진로 경로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진

로성과의 다양한 구성 요소 중 졸업 직후 확인 가능한 초기 진로성과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과를 졸업 직후 진로진입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취업·진학·미취업 여부로 구분하고, 입학 초기 적응역량과 스트레스 재학 중 학업성취도(GPA)가 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졸업생으로, 2023년 입학 초기(T1)에 대학생 적응역량 검사를 실시하고 2025년 졸업 직후 진로성과(T3)를 추적한 학생 51명이다. 2023년에 입학한 신입생 총 64명 중 신뢰성 지표(반응일관성, 연속동일반응, 사회적바람직성, 무응답수)를 충족한 51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1 자료는 2023년 입학 초기에 진행한 대학생 적응역량 검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검사 결과는 T점수(평균 50, 표준편차 10)로 환산되며, 50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점수는 평균 이상, 낮은 점수는 평균 이하를 의미한다. 지표별 해석 기준은 높음(59T 이상), 다소 높음(53~58T), 보통(47~52T), 다소 낮음(42~46T), 낮음(41T 이하)으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T2 자료는 2023~2024년 재학기간 학업성취도(GPA)를 활용하였다. T3 자료는 2025년 졸업 직후 취업·진학·미취업 여부를 학과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의 성별 구성은 여학생 33명(64.7%),

남학생 18명(35.3%)이며, 진로성과별 분포는 취업 12명(23.5%), 진학 15명(29.4%), 미취업 24명(47.1%)이다.

3.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ython 3.13.3(scipy, statsmodels, pingouin 라이브러리)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와 Shapiro-Wilk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RQ1~3을 검증하기 위해 졸업 직후 진로성과 집단 간 차이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Kruskal-Wallis 검정으로 분석하고, Tukey HSD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정규성 위반 변수(가정내갈등, 사회적갈등, GPA)에 대해서는 비모수 검정 결과를 병행 보고하여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진로성과에 대한 예측 변수를 규명하였으며, 예측변수는 z-점수로 표준화하여 투입하였다.

다섯째, RQ4를 검증하기 위해 GPA의 진로성과에 대한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RQ5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 절차를 적용하되, 표본(N=51)에서 검정력이 낮은 Sobel 검정 대신 Hayes(2013)가 권장하는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5,000회 반복 재표집을 통해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CI)을 추정하고, CI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으며, 효과크기는 eta-squared(η^2)를 사용하여 Cohen(1988)의 기준(소=.01, 중=.06, 대=.14)으로 해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진로성과별 분포는 미취업 24명(47.1%), 진학 15명(29.4%), 취업 12명(23.5%) 순으로, 졸업 시점 기준 약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미취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취업자의 주요 취업처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도서관 관련 기업, 신문사 등 주로 문헌정보학 관련 직종으로 나타났으며, 진학자는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진학(학사학위 및 대학원 과정) 등의 경로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 졸업생의 진로가 전공 분야와 밀접

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댓값 2.0과 7.0 이하로 정규성 허용 범위를 충족하였으나(Curran et al., 1996), Shapiro-Wilk 검정 결과 가정내갈등($p = .036$), 사회적갈등($p = .026$), GPA($p < .001$)는 정규성을 위반하였다. 특히 GPA의 경우 하위 이상치(최솟값=0.09)로 인한 부적 편포(왜도=-1.39)가 확인되었다. 이에 RQ1~3 분석에서 ANOVA와 비모수 검정인 Kruskal-Wallis를 병행 실시하여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적응도 계열 내에서는 현재적응도와 미래적응도 간 높은 정적 상관($r = .70, p < .001$)이 확인되었으며, 스트레스 계열 내에서도 가정내갈등과 사회적갈등 간 유의한 정적 상관($r = .58, p < .001$)이 나타났다. 적응도와 스트레스 계열 간에는 이론적 방향과 일치하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현재적응도↔사회적갈등 $r = -.71, p < .001$), GPA는 목표지향성($r = .32, p < .05$), 자존감($r = .31, p < .05$), 미래적응도($r = .30, p < .05$)와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여	33	64.7
	남	18	35.3
졸업 직후 진로성과	취업	12	23.5
	진학	15	29.4
	미취업	24	47.1
합계		51	100.0

〈표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정(Shapiro-Wilk)

구분	변수	M	SD	Min	Max	왜도	첨도	SW	p	정규성
RQ1 적응도	현재적응도	96.47	15.02	49.00	124.00	-0.55	0.94	0.960	0.087†	충족
	미래적응도	95.31	15.36	66.00	135.00	0.54	0.34	0.969	0.198	충족
RQ2 적응역량	목표지향성	47.07	10.27	21.80	72.90	0.32	0.44	0.969	0.192	충족
	자존감	44.69	11.60	14.30	72.20	0.16	0.34	0.978	0.466	충족
	자기통제력	47.96	10.67	19.90	68.70	-0.40	-0.15	0.974	0.316	충족
RQ3 스트레스	가정내갈등	50.33	8.74	34.40	72.60	0.18	0.16	0.951	0.036*	위반
	사회적갈등	50.36	10.44	34.30	79.80	0.53	-0.09	0.948	0.026*	위반
	학업적부담	49.78	8.41	32.40	71.00	0.39	-0.06	0.961	0.093†	충족
RQ4/5 매개	GPA	3.15	0.91	0.09	4.49	-1.39	2.39	0.893	<.001***	위반

* SW = Shapiro-Wilk 통계량; 왜도 |2| 이하, 첨도 |7| 이하는 정규성 허용 범위로 간주(Curran et al., 1996)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Pearson r)

변수	1	2	3	4	5	6	7	8	M	SD
1. 현재적응도	-								96.47	15.02
2. 미래적응도	.70***	-							95.31	15.36
3. 목표지향성	.40**	.79***	-						47.07	10.27
4. 자존감	.68***	.70***	.57***	-					44.69	11.60
5. 자기통제력	.40**	.48***	.34*	.14	-				47.96	10.67
6. 가정내갈등	-.48***	-.37**	-.14	-.30*	-.21	-			50.33	8.74
7. 사회적갈등	-.71***	-.54***	-.21	-.41**	-.53***	.58***	-		50.36	10.44
8. 학업적부담	-.48***	-.26†	-.22	-.35*	-.14	.38**	.41**	-	49.78	8.41
9. GPA	.10	.30*	.32*	.31*	.13	-.18	-.20	-.39**	3.15	0.91

* 하삼각 행렬 제시. 1=현재적응도, 2=미래적응도, 3=목표지향성, 4=자존감, 5=자기통제력, 6=가정내갈등, 7=사회적갈등, 8=학업적부담, 9=GPA.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양측검정)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RQ5 매개효과 경로 a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4.3 연구 문제별 분석 결과

4.3.1 [RQ1~RQ3] T1 적응역량 변수의 졸업 직후 진로성과 집단 간 차이

진로성과 집단별 T1 변수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8개 변수 중 RQ3

에 해당하는 가정내갈등만이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 48) = 3.440, p = .040, \eta^2 = .125$. η^2 값은 Cohen(1988)의 대효과 기준(.14)에 근접하는 중대 효과 크기이다. Kruskal-Wallis 검정에서도 동일하게 가정내갈등이 유의하였 으며($H = 6.115, p = .047$), Tukey HSD 사후검정 결과 미취업 집단($M = 53.33$)이 취업 집단($M = 45.84$)보다 가정내갈등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38$). 두 검정이 일

〈표 4〉 졸업 직후 진로성과 집단별 T1 변수의 평균 비교(ANOVA 및 Kruskal-Wallis 검정)

구분	변수	취업 (n=12)	진학 (n=15)	미취업 (n=24)	F	p(ANOVA)	η^2	H	p(KW)	사후검정
RQ1	현재 적응도	94.25 (17.58)	98.00 (10.98)	96.62 (15.36)	0.204	0.817	.008	0.615	0.735	-
	미래 적응도	94.08 (16.03)	97.40 (15.70)	94.62 (14.33)	0.194	0.824	.008	0.706	0.703	-
RQ2	목표 지향성	47.23 (8.87)	48.44 (9.72)	46.13 (10.92)	0.229	0.797	.009	0.806	0.668	-
	자존감	44.60 (13.26)	47.61 (11.07)	42.90 (10.37)	0.754	0.476	.030	1.256	0.534	-
	자기 통제력	51.78 (8.77)	45.73 (8.38)	47.45 (12.01)	1.132	0.331	.045	2.438	0.295	-
RQ3	가정내 갈등	45.84 (7.32)	49.13 (7.14)	53.33 (8.98)	3.440	0.040*	.125	6.115	0.047*	미취업>취업(*)
	사회적 갈등	49.08 (12.43)	48.14 (7.79)	52.40 (10.19)	0.881	0.421	.035	1.512	0.469	-
	학업적 부담	47.07 (5.07)	48.32 (7.24)	52.06 (9.57)	1.786	0.179	.069	3.391	0.184	-

* M (SD) 제시; F = ANOVA F통계량, df(2, 48); H = Kruskal-Wallis 통계량
 η^2 효과크기: 소(.01), 중(.06), 대(.14) (Cohen, 1988); 사후검정: Tukey HSD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관된 결론을 지지하여 결과의 강건성이 확인되었다.

RQ1(적응도)의 현재적응도와 미래적응도, RQ2(적응역량)의 목표지향성·자존감·자기 통제력, RQ3(스트레스)의 사회적갈등과 학업적부담은 세 집단 간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학업적부담의 경우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eta^2 = .069$)를 보이며 미취업 집단(M=52.06)이 취업 집단(M=47.07)보다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미취업을 기준집단으로 8개 T1 변수를 동시 투입한 취업 vs. 미취업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8) = 16.463$, $p = .036$, Pseudo R^2 (McFadden) = .296). 하지만 취업 학생 수(N=12)

대비 투입 변수 수가 많아 과적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본 결과는 탐색적 분석으로 해석하였다. 자기통제력(B=1.530, OR=4.617, $p = .026$)이 높을수록 미취업 대비 취업 가능성이 약 4.6배 높았으며, 가정내갈등(B=-1.171, OR=0.310, $p = .026$)이 높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69% 감소하였다. 반면 진학 vs. 미취업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chi^2(8) = 6.085$, $p = .638$), T1 적응역량 변수만으로는 진학 선택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2 [RQ4] GPA의 졸업 직후 진로성과 예측

GPA가 진로성취를 예측하는지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GPA는 취업 vs. 미취업($p = .119$)과 진학 vs. 미취업($p = .633$) 모두에서 졸업 직후 진로

〈표 5〉 RQ1~3: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기준집단:미취업)

취업 vs. 미취업							
RQ	변수	B	S.E.	Wald z	p	OR	95% CI
RQ1	현재적응도	-1.725	0.968	-1.783	0.075†	0.178	[0.027, 1.187]
	미래적응도	-0.579	1.089	-0.531	0.595	0.561	[0.066, 4.741]
RQ2	목표지향성	-0.125	0.911	-0.137	0.891	0.883	[0.148, 5.260]
	자존감	1.098	0.785	1.399	0.162	2.999	[0.644, 13.968]
	자기통제력	1.530	0.687	2.228	0.026*	4.617	[1.202, 17.738]
RQ3	가정내갈등	-1.171	0.527	-2.223	0.026*	0.310	[0.110, 0.871]
	사회적갈등	0.217	0.726	0.299	0.765	1.243	[0.299, 5.158]
	학업적부담	-0.750	0.521	-1.440	0.150	0.472	[0.170, 1.311]

* 모형 적합도: $\chi^2(8) = 16.463, p = .036^*$, Pseudo $R^2(\text{McFadden}) = .296$

진학 vs. 미취업							
RQ	변수	B	S.E.	Wald z	p	OR	95% CI
RQ1	현재적응도	-0.494	0.680	-0.727	0.467	0.610	[0.161, 2.312]
	미래적응도	-0.131	0.919	-0.143	0.886	0.877	[0.145, 5.315]
RQ2	목표지향성	0.420	0.749	0.561	0.575	1.522	[0.351, 6.607]
	자존감	0.293	0.552	0.530	0.596	1.340	[0.454, 3.955]
	자기통제력	-0.763	0.460	-1.659	0.097†	0.466	[0.189, 1.149]
RQ3	가정내갈등	0.086	0.409	0.211	0.833	1.090	[0.489, 2.429]
	사회적갈등	-0.942	0.608	-1.550	0.121	0.390	[0.118, 1.283]
	학업적부담	-0.138	0.421	-0.327	0.743	0.871	[0.381, 1.990]

* 예측변수는 z-점수로 표준화; OR = Odds Ratio; 95% CI: Wald 방법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6〉 RQ4: GPA → 졸업 직후 진로성과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기준집단:미취업)

비교	B(GPA)	S.E.	Wald z	p	OR	95% CI	Pseudo R^2	$\chi^2(1)$
취업 vs. 미취업	0.817	0.523	1.562	.119	2.262	[0.813, 6.294]	.049	2.584
진학 vs. 미취업	0.147	0.308	0.477	.633	1.158	[0.633, 2.120]	.005	0.229

* GPA는 z-점수로 표준화; OR = Odds Ratio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성과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다만 취업 모형에서 $OR = 2.262$ 로 GPA가 높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GPA 단독 효과는 미미하나, T1 적응역량 변수를 통제한 RQ5의 매개 경로에서의 역할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4.3.3 [RQ5] GPA 매개효과 검증

T1 적응역량 변수들이 GPA를 매개로 진로성과(취업)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지 Hayes(2013)의 부트스트래핑(5,000회 반복)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95% 신뢰구간(CI)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한

〈표 7〉 RQ5:GPA 매개효과 분석 결과

RQ	변수	경로a (X→M)	경로b (M→Y)	간접효과 (a×b)	Boot 95% CI	경로c' (직접)	경로c (총효과)	매개효과
RQ1	현재 적응도	0.138	1.291*	0.1786	[-0.243, 1.286]	-0.312	-0.148	없음
	미래 적응도	0.390*	1.447*	0.5646	[0.012, 2.277]	-0.475	-0.037	유의*
RQ2	목표 지향성	0.430**	1.308*	0.5624	[0.043, 2.516]	-0.279	0.109	유의*
	자존감	0.339*	1.255*	0.4251	[0.010, 2.285]	-0.157	0.151	유의*
	자기 통제력	0.206	1.140†	0.2354	[-0.357, 1.870]	0.373	0.421	없음
RQ3	가정내 갈등	-0.153	1.115†	-0.1705	[-1.235, 0.052]	-0.953†	-0.997*	없음
	사회적 갈등	-0.178	1.175†	-0.2091	[-1.511, 0.212]	-0.242	-0.316	없음
	학업적 부담	-0.432**	1.003	-0.4331	[-2.270, 0.016]	-0.305	-0.654	없음

* M=GPA(매개변수): Y=취업여부(취업=1, 미취업=0)
 경로a: OLS 표준화 회귀계수; 경로b, c, c': 로지스틱 비표준화 회귀계수
 Boot 95% CI: 백분위수 방법, 5,000회 재표집 기반 신뢰구간; CI에 0 미포함 시 매개효과 유의
 † p<.10, *p<.05, **p<.01, ***p<.001

것으로 판정하였다.

분석 결과, RQ1의 미래적응도(간접효과=0.5646, Boot 95% CI=[0.012, 2.277]), RQ2의 목표지향성(간접효과=0.5624, CI=[0.043, 2.516])과 자존감(간접효과=0.4251, CI=[0.010, 2.285])에서 GPA를 통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는 경로a(X→GPA)가 유의하고(미래적응도β=.39*, 목표지향성β=.43**, 자존감β=.34*), GPA→취업 경로b도 유의하여(1.291*, 1.308*, 1.255*) 완전 매개 또는 부분 매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현재적응도, 자기통제력, 가정내갈등, 사회적갈등, 학업적부담은 CI에 0이 포함되어 GPA를 통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내갈등과 자기통제력은 GPA를 경유하지 않고 진로성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4.4 연구 결과 종합

연구 결과를 RQ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RQ1(적응도)의 경우, 현재적응도와 미래적응도 모두 졸업 직후 진로성과 집단 간 직접적인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래적응도는 GPA를 매개로 진로성숙에 유의한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Q5).

RQ2(적응역량)의 경우, 자기통제력은 취업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유의한 예측 변수였다(OR=4.617, p=.026). 목표지향성과 자존감은 직접 효과는 없었으나 GPA를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RQ5).

RQ3(스트레스)의 경우, 가정내갈등이 집단

간 차이($p=.040$, $\eta^2=.125$)와 취업 가능성 감소($OR=0.310$, $p=.026$) 모두에서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갈등과 학업적부담은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RQ4(GPA)의 경우, GPA 단독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p>.10$), RQ5에서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이 확인되었다. 이는 GPA가 독립적으로 진로성취를 예측하는 변수라기보다, T1 적응역량 변수들이 진로성취로 이어지는 경로 안에서 매개변수로 기능하는 변수임을 시사한다.

RQ5(매개효과)의 경우, 미래적응도·목표지향성·자존감이 GPA를 매개로 취업 가능성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업적 동기와 심리적 자원이 학업성취를 통해 진로성취로 이어지는 경로를 시사한다.

종합하면, 전문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의 진로성취는 단일 요인보다 심리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복합적 경로를 통해 결정되며, 특히 미래적응도·목표지향성·자존감의 GPA 매개효과와 가정내갈등 및 자기통제력의 직접 효과가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전문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생 51명을 대상으로 입학 초기 적응역량(T1)이 학업성취도(GPA, T2)를 매개로 졸업 직후 진로성취(T3)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1 적응역량 변수 중 가정내갈등은 진로성취와 집단 간 직접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관

련성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정내갈등이 높은 학생일수록 취업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며($OR=0.310$), 이는 학업 기간 중의 가정 환경이 졸업 직후 진로 적응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둘째, 자기통제력은 취업 가능성을 약 4.6배 높이는 핵심 역량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조절 능력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취업 준비와 직결됨을 의미한다. 셋째, 미래적응도·목표지향성·자존감은 GPA를 매개로 졸업 직후 진로성취에 간접 영향을 미쳤다. 다만 GPA는 단독으로는 진로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이들 심리적 자원과 결합된 조건에서 매개변수로 기능할 때 비로소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독립적인 예측 요인이라기보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학업적 동기, 심리적 자원이 진로성취로 이어지는 경로 변수로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4년제 대학 중심 선행연구와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과 차별점을 보인다. Hirschi(2009)와 Savickas(2005)가 제안한 진로 적응성 이론과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성과 심리적 자원이 진로성취의 핵심 선행요인임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취업중심 전문대학의 특성상 단기 교육과정, 실무 중심 교육, 조기 취업 등에서는 가정내갈등 및 자기통제력과 같은 변수가 더욱 두드러진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전문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 지원 프로그램 설계 시, 학업 성취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자기통제력 강화 및 가정 환경 진단을 포함한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진로성과 향상에 더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

과이다. 특히 입학 초기 적응역량 검사 결과를 활용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전문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 지원은 학업 성취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자기통제력 강화 및 가정 환경 진단을 포함한 심리적·정서적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입학 초기 적응역량검사 결과를 활용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의 도입은 졸업 직후 진로성과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입학 시점(T1)의 심리적 자원이 최종 진로성과(T3)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시계열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이는 진로지도의 시작 시점을 입학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지도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가정내갈등이 취업 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학교 차원에서 가정 환경 취약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정서 지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학업 수행뿐 아니라 진로 전환 시점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자기통제력이 취업 가능성을 약 4.6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교과 과정 내에 자기관리, 시간 관리, 목표 설정 등 자기조절 역량을 함양하는 과목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반드시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에게 국한한 결과는 아니지만 도서관 분야의 취업현장은 현장경험, 현장실습 등 역량 교육 경험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서

관 분야의 취업 환경을 반영한 실무 연계형 진로 교육이 자기조절 역량과 병행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 기관 소표본(N=51)으로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규모 표본, 타 전공, 복수 기관, 지역 간 비교 표본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으나 소표본의 특성상 신뢰구간의 불안정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향후 더 큰 표본을 통한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진로성과는 졸업 시점 기준의 취업·진학·미취업 여부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진로성과는 단기적 취업 여부를 넘어 직무 만족도, 진로 지속성, 직업 정체성 등 장기적 차원의 개념을 포괄한다. 향후에는 졸업 후 1년, 3년, 5년 시점의 추적 조사를 통해 진로성과의 지속성과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대학생 적응역량 검사 변수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나, 변수의 설정을 교내 역량강화 활동, 도서관 현장실습 참여, 전공 만족도 등 학교 생활 요인과 외부 노동시장 구조 변수를 함께 고려하면 더욱 통합적인 연구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문대학 문헌정보학 전공이라는 특수한 교육 맥락에서 입학 초기 심리적 자원과 졸업 직후 진로성과 간의 시기 간 연계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전문대학 교육의 효과를 진단하고 진로지도 방향을 설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고명주, 최보영 (2017).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24(6), 81-104. <https://doi.org/10.21509/kjys.2017.06.24.6.81>
- 김경화, 류정희 (2024). 청년기의 가치관, 지식공유, 직업적응역량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 차이 분석. *취업진로연구*, 14(2), 25-49. <https://doi.org/10.35273/jec.2024.14.2.002>
- 김선환, 김미중 (2016). 대학생의 진로지도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4(4), 407-418. <https://doi.org/10.14400/JDC.2016.14.4.407>
- 김수연, 조한익 (2013). 사범계열 대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 기본욕구만족, 학업성취도 및 대학생 활적응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2), 307-328. <https://doi.org/10.16983/kjsp.2013.10.2.307>
- 노영희, 심호정, 박우정 (2017).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취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69-102. <https://doi.org/10.4275/KSLIS.2017.51.1.069>
- 문학선, 김양균 (2020).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0(3), 91-119. <https://doi.org/10.35273/jec.2020.10.3.005>
- 박신영, 이동형 (2013).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 *직업교육연구*, 32(1), 23-38.
- 송경진 (2023).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학습몰입의 관계: 보건행정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9(6), 197-207. <https://doi.org/10.47116/apicri.2023.06.16>
- 신정철, 정지선, 신택수 (2008).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그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1), 287-313.
- 양지안 (2025). 대학생의 적응역량 및 스트레스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14(6), 847-859. <https://dx.doi.org/10.29056/jncist.2025.12.10>
- 오미진, 김봉환 (2021).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삶의 의미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29(3), 180-203. <https://doi.org/10.22924/jhss.29.3.202112.008>
- 이경희, 김지연 (2014).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17(4), 33-57. <https://doi.org/10.22955/ace.17.4.201411.33>
- 이중훈, 김성환 (2018).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HRD연구*, 14(2), 77-96. <https://doi.org/10.35637/klehrd.2018.14.2.004>

- 이현숙, 양유정 (2021). 대학생의 진로목표지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5(7), 205-213. <https://doi.org/10.21184/jkeia.2021.10.15.7.205>
- 정귀연 (2025). 대학신입생의 정서적응과 사회적응이 진로적응과 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44(1), 171-198. <https://doi.org/10.35222/IHSU.2025.44.1.171>
- 조영미 (2025).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11(12), 889-898. <https://doi.org/10.47116/apjcri.2025.12.55>
- 지영주, 양승경 (2021). 신입생 적응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6), 215-223.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6.215>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발행년불명). *문헌정보학과 학과전망*. 커리어넷 진로정보망. 출처: <https://www.career.go.kr/cloud/w/main/home>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redé, M. & Niehorster, S. (2012). Adjustment to college as measured by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a quantitative review of its structure and relationships with correlates and consequenc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4(1), 133-165. <https://doi.org/10.1007/s10648-011-9184-5>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https://doi.org/10.1037/1082-989X.1.1.16>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irschi, A. (2009).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45-155. <https://doi.org/10.1016/j.jvb.2009.01.002>
- Hirschi, A., Herrmann, A., & Keller, A. C. (2015). Career adaptivity, adaptability, and adapting: a conceptu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7, 1-10.

<https://doi.org/10.1016/j.jvb.2014.11.008>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Monograp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https://doi.org/10.1006/jvbe.1994.1027>
- Li, X., Pu, R., & Phakdeephrot, N. (2022). The influence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college students' employability: a chain mediation analysis of self-efficacy and academic performance. *Frontiers in Psychology*, 13, 972910. <https://doi.org/10.3389/fpsyg.2022.972910>
- McFadden, D. (1974). Conditional Logit Analysis of Qualitative Choice Behavior. In P. Zarembka (Ed.). *Frontiers in Econometrics*. New York: Academic Press.
- Richardson, M., Abraham, C., & Bond, R. (2012). Psychological correlates of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8(2), 353-387. <https://doi.org/10.1037/a0026838>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Hoboken: John Wiley & Son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Young-Mi (2025).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stress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11(12), 889-898. <https://doi.org/10.47116/apjcri.2025.12.55>
- Jee, Young-Ju & Yang, Seung-Kyoung (2021). Effect of college adjustment program for freshmen of nursing on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6), 215-223.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6.215>
- Jeong, Gwiyeon (2025). The effects of emotional and social adaptation on career and environmental adaptation among college freshm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adaptation. *Soonchunhyang Journal of Humanities*, 44(1), 171-198. <https://doi.org/10.35222/IHSU.2025.44.1.171>
- Kim, Kyung-Hwa & Lyu, Jeong-Hee (2024). Analyzing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by type of values, knowledge sharing, and occupational adaptation competencies among young adult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4(2), 25-49.

<https://doi.org/10.35273/jec.2024.14.2.002>

- Kim, Soo-yeon & Cho, Han-Ik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basic need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adjustment of teachers'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0(2), 307-328.
<https://doi.org/10.16983/kjsp.2013.10.2.307>
- Kim, Sun-Hwan & Kim, Mi-jong (2016).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program on self-esteem, self-efficacy 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4), 407-418.
<https://doi.org/10.14400/JDC.2016.14.4.407>
- Ko, Myeongju & Choi, Bo-Young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ion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6), 81-104.
<https://doi.org/10.21509/kjys.2017.06.24.6.81>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n.d.).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areer Prospects. CareerNet Career Information Network. Available: <https://www.career.go.kr/cloud/w/main/home>
- Lee, Gyeong Hee & Kim, Ji Youn (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cours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17(4), 33-57. <https://doi.org/10.22955/ace.17.4.201411.33>
- Lee, Hyun-Suk & Yang, Yu-Jeong (2021).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areer goal orientation on career identify: according to life style college life adapt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s a medium.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5(7), 205-213. <https://doi.org/10.21184/jkeia.2021.10.15.7.205>
- Lee, Jonghun & Kim, Sunghwan (2018). The effect of satisfaction of the major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14(2), 77-96.
<https://doi.org/10.35637/lehrd.2018.14.2.004>
- Moon, Hak-Sun & Kim, Yang Kyun (2020).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0(3), 91-119.
<https://doi.org/10.35273/jec.2020.10.3.005>
- Noh, Younghee, Shim, Hyojeong, & Kwak, Woojung (2017).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 employment amo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1), 69-102.
<https://doi.org/10.4275/KSLIS.2017.51.1.069>
- Oh, Mi-Jin & Kim, Bong-Whan (2021). The impact of career identity and the meaning of life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9(3), 180-203. <https://doi.org/10.22924/jhss.29.3.202112.008>
- Park, Shin-Young & Lee, Donghyung (2013).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2(1), 23-38.
- Shin, Jung-Cheol, Jung, Ji-Sun, & Shin, Tack-Soo (2008). Causal relations between college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and its facto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6(1), 287-313.
- Song, Kyoung-Jin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elf-control and learning flow in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student in health-care management.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9(6), 197-207.
<https://doi.org/10.47116/apjcri.2023.06.16>
- Yang, Ji-Ann (2025).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adaptation capacity and stress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14(6), 847-859. <https://dx.doi.org/10.29056/jncist.2025.12.10>